

## 2022년 1월 1일 "(신년예배)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"(갈 4:19)

올해 교회 표어인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에 대한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

### [1]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길

마치 아기가 임신과 해산을 통해서 나오듯이 예수님이 당신의 존재를 성도 안에서 형성시킨다는 의미입니다. 예수님의 사랑과 인내 같은 성품이 내 안에 비추어지고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.

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일이 더디 일어나는 이유는 율법주의와 관계된 거짓 가르침에 있습니다. 예수님을 잘 따르며 닮고 싶었지만 거짓 가르침에서 길을 찾으려 했던 것입니다. 그들은 예수님에 무언가를 더하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.

현대판 갈라디아 교우들의 모습을 말하라면, 예수님 믿으면서 멋지게 보이려는 것입니다. 성도가 성품적으로, 경제적으로, 종교적으로, 어떤 면에서 멋지게 보이려는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.

이것은 21세기 시대정신에 부합합니다. 20세기에 산업화-민주화의 과정을 거쳐 왔고, 요즘은 선진화를 주장합니다. 더 새롭고, 특별한 것으로 앞서야 한다는 의식이 시대정신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남다른 개성으로 앞서 가려고 합니다.

그러나 진정으로 새롭고 특별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의 의도가 이뤄질 때 나타납니다. 창조의 정상적 모습은 질서와 조화입니다. 이것을 통해 하나됨을 이루면 세상에서 새롭고 특별한 것으로 드러납니다. 성도가 하나됨을 잘 지키면 아름다운 공동체로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.

### [2] 믿음의 축복

믿음의 축복은 예수님을 닮고 따를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. 세 영역에서 본다면,

- (1) 예수님의 성품: 말씀 속에서 주님 성품을 읽어내고, 묵상하고,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. 성품의 변화는 예수님을 향한 집중과 인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. 긴 시간이 요구됩니다.
- (2) 안목과 가치관: 예수님의 우선순위를 배우는 것입니다. 주님의 우선순위는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. 이것을 위해 사람에게 당신의 사랑을 부으십니다. 우리 안목과 가치관도 이것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.
- (3) 방식: 말구유에서 십자가로 내려가시는 아래를 향한 삶의 방식으로 사셨습니다.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려면 세상에서 아래를 향한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.

이것을 익혀갈 때 참 사랑의 세계가 열립니다. 인간이 사는 목적이 사랑임을 알게 됩니다.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에도 주님이 주시는 해결책은 사랑입니다. 그래서 사랑을 선택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진실한 길입니다.

이 사랑을 배우고 행하면 자유함을 얻습니다. 어려운 상대나 처절한 환경 속에서도 사랑하는데 집중하기 때문에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.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, 사랑에 대한 강박이 없어야 합니다. 사랑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결국 사랑을 변질시킵니다. 그래서 사랑을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.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.

올해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성도님들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.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삶의 한 기둥은 사랑이고, 또 한 기둥은 자유입니다. 이 두 기둥이 우리 삶 속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2023 년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

**<나눔의 질문>**

1.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을 의미할까요?
2.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원인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?